

KIA의 한방, 가을야구 희망을 부른다

시즌 막바지 LG와 5위 싸움
마운드 난조 속 불 뿜는 타격 위안
9월 13경기 18개 홈런중 만루포 5개
패색 짙은 승부 극적 반전 이끌어

아직 끝나지 않은 순위 싸움에 KIA 타이거즈의 '한 방'이 있다.

"디펜딩 챔피언"에게는 마음 같지 않은 2018시즌이다. 연습 길목에서 치명적인 패배들이 쌓이면서 시즌 막바지 5위 싸움을 하고 있다.

아쉬운 끝내기 패배도 연달아 기록됐지만 살아남 방망이는 남은 싸움을 기대게 한다. 특히 만루에서 터지는 홈런이 KIA 타선의 힘을 보여준다.

19일 경기까지 9월 13경기에서 KIA는 18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5개가 만루홈런이다.

안치홍이 영양가 만점의 만루 홈런 두 방을 터트리면서 승리를 불렀다.

지난 6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1-2로 뒤진 8회 무사 만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며 승부를 뒤집었던 안치홍은 지난 18일 대구에서 다시 한번 그랜드슬램을 작렬했다.

이번에도 1-1의 승부를 5-1로 만든 결승타였다. 1-1로 맞선 3회초 1사 만루에서 안치홍은 역시 좌측 하늘을 가르고 개인 통산 4번째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이날 박준태도 7회 2사 만루서 우중간으로 공을 보내면서 프로 첫 만루홈런 기록을 장식했다. 두 개의 만루포를 앞세운 KIA는 18-3의 대승에 성공했다.

만루홈런이 승리만 부른 것은 아니다.

지난 9일 안방에서 열린 삼성전에서 9번 타자 겸 포수로 선발 출장했던 한승택은 2회말 2사 만루서 좌측 담장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한승택의 개인 통산 3호 홈런이자 첫 만루포. 하위 타순에서 나온 만루포였던 만큼 3연승의 분위기를 이어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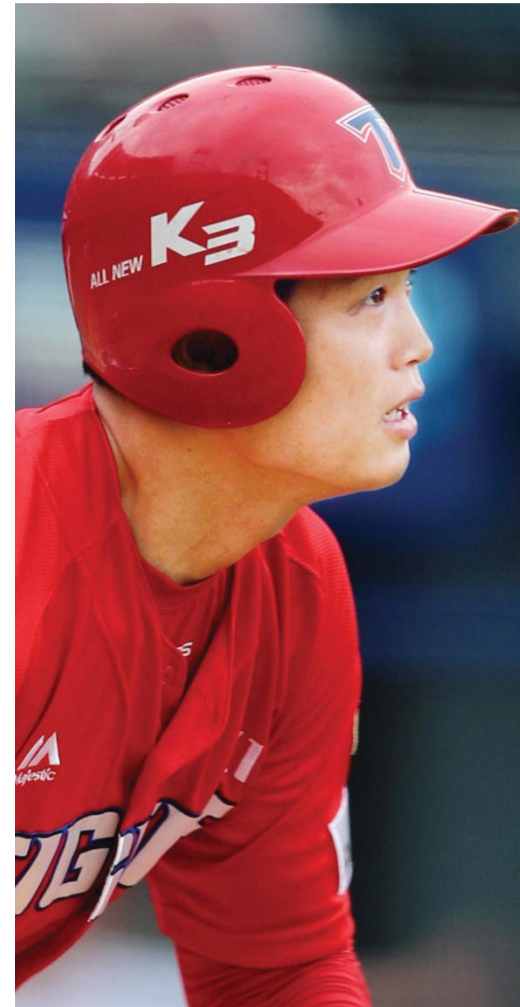
안치홍



김주찬



한승택



박준태

싸움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믿었던 핵타가 이어진 3회초 수비에서 강민호에게 역전 만루포를 허용하는 등 대거 6실점을 하면서 겁이 났다.

최형우도 역전 주인공에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19일 최형우는 1-6로 뒤진 9회초 1사 만루서 삼성 심정민에게 만루포를 뺏어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삼성 시절이던 지난 2016년 6월 26일 이후 2년 만에 기록된 최형우의 통산 5번째 만루포.

분위기를 탄 KIA는 김주찬의 투런까지 더해져 8-6의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운드가 문제였다. 마무리 윤석민이 세이브에 필요했던 아웃카운트 3개를 채우지 못하고 패전투수가 된 것이다. 투 아웃까지는 잘 잡았지만 연속 3안타를 허용했다. 특히 마지막 안타

는 김상수의 끝내기 투런이었다.

두 차례 뼈아픈 패배는 남았지만 기대하지 않던 타선에서도 만루포가 터지는 등 KIA는 지난해 우승 동력이었던 '타격의 힘'을 보여주며 상대 배터리를 압박하고 있다.

깜짝 만루포의 주인공 한승택은 "경기 전에 감독님과 타격 이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 투아웃 상황이었고, 앞에 타자가 볼넷으로 나가서 극단적으로 자신 있게 해보자고 생각을 했다. 첫 만루홈

런이라 기분이 좋았지만 팀이 이기지 못해서 아쉽다"고 언급했다.

박준태는 "점수 차가 있어서 부담 없는 타석이었다. 자신있게 타격을 했는데 잘 맞았다.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 잘하고 싶다"고 첫 그랜드슬램의 소감을 밝혔다.

타선의 집중력과 힘을 앞세운 KIA가 가을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치홍이가 다 가져가네 = 이범호는 KBO리그 최다 만루홈런 기록자다. 지난해까지 무려 16번이나 만루에서 담장을 넘기면서 2위 심정수(12개)에 한참 앞선 독보적인 만루의 사나이이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아직 만루홈런이 없는 이범호. 대신 팀은 9월 한 달 5개의 만루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범호는 "요즘 우리팀이 만루홈런을 많이 치고 있다. 치홍이가 앞에서 다 가져간다. 형우 홈런은 보폭이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이범호의 앞쪽에 배치되고 있는 안치홍은 9월 한 달 2개의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두 번 들고 싶었어요 = 한승택은 올 시즌 자신의

홈런 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5월 25일 NC 원정에서 프로 데뷔 홈런을 터트렸던 한승택은 이날 연타석 홈런도 기록했다. 지난 9일에는 만루홈런까지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승택은 만루홈런 상황에 대해 "잘 맞았다고는 생각했는데 펜스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 못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달렸다. 나중에 홈에 들어오니까 앞선 주자들이 반겨주고 기분이 좋았다. 그라운드를 두 번 돌고 싶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고향이라서 = KIA는 지난 18-19일 삼성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다. 임창용과 전상현이 두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했다. 대구를 다녀온 두 사람의 소감은 엇갈렸다. 임창용은 18일 등판에서 시즌 두 번째 퀄리티스타트와 함께 시즌 4승도 성공했다. 그리고 이날 경기를 통해 임창용은 한-미-일 통산 1000경기 출장이라는 대위업을 이뤘다. 프로 데뷔전을 대구에서 치렀던 임창용은 1000경기도 대구에서 채웠다. 축하 인사를 받은 임창용은 "고향에서

해야"라며 홈에서 1000경기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전상현은 "고향이라서"라며 다른 아쉬움을 토로했다. 퓨처스리그 다승왕에 빛나는 전상현은 지난 19일 두 번째 등판을 선발로 소화했다. 대구 상원고 전상현은 "고향에서 첫승을 하고 싶었다. 4회 2사에서 볼넷을 내준 게 너무 아쉬웠다"며 "긴장은 안 됐는데 명했다. 선두타자 홈런을 맞고 정신이 들었다. 피하지 않고 승부를 했던 것은 좋았다. 앞으로는 힘을 더 키워서 승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자평했다.

▲바로 비행기 예약하겠습니다 = 실망에서 기대감으로 바뀐 문경찬의 2018시즌이다. 지난해를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문경찬에게 올 시즌은 새로운 출발이다. 문경찬은 "제대하고 왔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초반에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도 있었다. 이제 불펜 투수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것 같다. 군대에서 선발로 뛰다 와서 풀렸던 것들도 있었고 이제 알 것 같다"며 "올해는 큰 욕심 내지 않고 배우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경찬은 이어 "마무리킵프에서 열심히 하겠다. 라커룸 들어가서 바로 비행기 예약하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복귀 앞 박준표 투수 2관왕

KBO 퓨처스리그 6개월 대장정 마무리...경찰 야구단 8년 연속 우승

KBO 퓨처스리그가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3일 개막했던 퓨처스리그는 지난 19일 열린 고양-한화(서산), SK-롯데(상동), 화성-두산(이천)의 경기를 끝으로 2018시즌 일정을 마감했다.

12개 팀이 북부(경찰, SK, 화성, 고양, LG, 두산)와 남부(KIA, 상무, KT, 한화, 삼성, 롯데) 2개 리그로 나눠 총 570경기를 치렀으며, 북부리그에서는 경찰 야구단이 55승 32패 8무(승률 0.632)로 2011년 이후 8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남부리그에서는 상무 야구단이 51승 35패 10무(승률 0.593)로 2012년 이후 7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퓨처스리그를 운영한 KIA는 41승 45패(승률 0.477)로 남부리그 4위를 기록했다.

개인 타이틀도 대부분도 우승팀인 경찰과 상무 선수들이 차지했다. 내달 10일 KIA 복귀를 앞둔 경찰 박준표는 평균자책점 2.37과 12승으로 북부리그 투수 부문 2관왕에 올랐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경찰 이성규도 31홈런, 79타점으로 홈런상과 타점상(공동)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남부리그 투수 부문에서는 상무 군복무를 마친



박준표

고 KIA로 복귀한 전상현이 평균자책점 3.06, 13승으로 활약하며 2관왕이 됐다. 전상현은 117타살진을 기록하면서 퓨처스리그에서 유일하게 100타살진을 돌파한 투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퓨처스리그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개최되는 2018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올 시즌 KBO는 야간에 경기를 치르는 퓨처스 서머리그를 지난해 72경기에서 1차 72경기, 2차 48경기 등 총 120경기로 대폭 확대하며 경기력 향상을 도모했다. 또 퓨처스리그 인공지능(AI) 로봇기자 '케이봇(KBOT)'을 도입해 7월 후반기부터 전 경기 결과 기사를 KBO 홈페이지, 공식 SNS에 게재하며 야구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면 탈락...광주 FC 물러설 곳이 없다

23일 4위 대전과 홈경기...승점 6점차 PO 진출 명운 걸려

광주 FC가 연패를 끊고 플레이오프 경쟁에 속도를 높인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29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무패행진을 달리며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가 됐던 광주지만 최근 상황은 좋지 못하다. 2연패를 기록하는 등 최근 7경기에서 5무 2패로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대전이 치고 오르면서 4위에서 5위로 순위도 하락했다.

대전은 최근 8경기에서 6승 2무 무패행진을 달리면서 승점 42점으로 5위 광주에 승점 6점 차로 앞서 있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패를 기록하면 두 팀의 격차는 9점 차까지 벌어진다.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번 패배는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를 의미한다.

어느 경기보다 귀한 승리가 걸려있는 경기다. 광주가 대전에 승리를 거둔다면 3점 차로 추격을 할 수 있고, 분위기 반전도 이룰 수 있다.

올 시즌 광주는 대전과 1승 1무 1패로 팽팽히 맞

서있다.

후반기 무패 행진을 이끌었던 공격이 대전의 견고한 수비를 뚫어야 한다.

대전은 최근 8경기에서 3실점으로 그치는 등 안정된 수비를 과시하고 있다. 나상호-펠리페-두아르테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가 대전의 수비를 흔들어야 한다.

최근 흔들리고 있는 광주 수비도 재정비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안산 원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김진환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 부주장 이한도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한도는 주장 안영규와 함께 그라운드 안팎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대전이 최근 1-2골 차 승부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무실점'의 각오로 수비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막강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전에는 황인범까지 가세 했다. 앞선 경기에서 아산 선수로 광주를 상대했던 황인범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조기 전역하면서 소속팀 대전으로 복귀해, 다시 광주를 만난다.

아시안게임에서 동료로 금메달을 합작했던 나상호와와의 맞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공격수 나상호

물러설 이 없는 광주가 대전과의 외나무다리 승부에서 승리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